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불합리한 현행 임금체계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학력간·직종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위원장 단병호)는 최근 발간한 <1993년 임금지침>이란 연구보고서에서 노동부의 각종 통계와 자체조사 결과를 인용해 학력간·직종간 월평균 임금실태를 분석하고 현행 임금체계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전노협에 따르면 대졸 이상 남녀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이 크게 상승해 91년 현재 50대 초반이 남자 1백87만원, 여자 1백63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고졸 남자의 경우 연령증가에 따른 임금 상승폭이 낮아 40대 초반 이후에는 88만~89만원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여자의 경우 30대 초반 57만원을 정점으로 그 이후 연령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임금이 줄고 있으며, 40대 초반 이후에는 47만~48만원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대졸 이상 남녀는 30대 초반 이후 임금이 최저생계비

를 웃돌고 있는 데 비해(남자 30~34살 6만원, 여자 7만원 웃돌), 고졸의 경우 남녀 모두 모든 연령에 걸쳐 최저생계비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직종별 월평균 임금과 관련해서도 연령증가에 따른 임금격차는 전혀 해소되지 않은 채 오히려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관리직 남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속적으로 임금이 상승해 50대 초반에 1백51만원에 이르게 되나, 사무관리직 여자와 생산직 남자의 경우 30대 초반 이후 각각 88만~89만원, 65만~69만원에서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생산직 여자는 20대 37만원을 정점으로 나이가 들수록 임금이 줄어 30대 초반 이후 33만~35만원에 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남녀 모두 연령증가에 따라 사무직·생산직 직종간 임금격차가 확대돼 남자는 20대 초반 10만원에서 50대 초반에는 84만원으로, 여자는 20대 초반 8만원에서 50대 초반 55만원으로 각각 차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노협은 이처럼 연령증가에 따라 임금격차가 커지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직종

간 별도의 임금체계를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대안으로 단일호봉제 도입 확대를 제시했다. 즉 대졸·고졸 사무직종과 고졸 생산직종을 분리해 여러 갈래의 직급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초임 당시 임금격차는 그다지 크지 않으나 햇수가 늘어남에 따라 직종간 정기승급에서의 격차 심화를 초래해 생애임금 격차는 자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종별·학력별 구분없이 모든 사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임금체계인 단일호봉제로 전환하는 것이 직종별·학력별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전노협은 주장했다.

전노협은 이와 함께 호봉승급제 도입 확대와 연공성(나이나 근속연수가 많아지면 임금도 자연히 증가하는 성향)의 강화를 주장했다. 호봉승급제와 승급의 연공적 운영은 근속에 따른 임금상승을 보장함으로써 고용안정을 위한 중요한 구실을 하는데도 아직 호봉승급제를 실시하지 않은 기업이 많을 뿐더러 호봉승급액 역시 생계비 상승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근속기간이 지나면 최고호봉에 도달해 승급이 더이상 이루어지지 않거나 승급액이 크게 축소되는 현행 임금체계를 개선해 호봉승급이 정년 때까지 계속되고 호봉승급액도 감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노협은 지적했다.

전노협은 이와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사용자쪽이 직능·직무급제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고과에 의한 승급이나 특별승급 등을 통해 사용자의 노무관리강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도형 기자

학력·직종간 임금격차 나아들수록 더 벌어져

전노협 분석 단일호봉제 확대 등 개선 시급